

# 조선민화·미디어아트 만나볼까 판소리 가락에 취해볼까

ACC 6일까지 어린이 연극·체험 프로 등 풍성한 문화행사 미술관들 다양한 전시... 전통문화관 송순섭과 제자들 공연

설 연휴 동안에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대표 문화기관에서는 풍성한 문화 행사를 마련하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이진식, ACC)은 설 당일인 5일을 제외하고 6일까지 문을 열고 풍성한 설 행사를 준비했다.

어린이문화원에서는 아시아 전통문화놀이와 창작체험 프로그램, 어린이 공연으로 구성된 '2019년 설날, 함께하면 복돼지! 행사'를 연다. 중국의 전통놀이와 윷놀이, 투호는 누구나 자유롭게 즐길 수 있으며, 새해 만복 기원의 의미를 가진 '복돼지 만들기' 체험, '소원 팽이 및 소망기원 연 만들기' 체험은 사전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2일과 3일 어린이극장에서는 연극 '달아난 수염'을 만날 수 있다. 극단 무릎배가 무대에 올리는 '달아난 수염'은 수염을 자를 도구가 없어 수염을 길러야만 했던 스텔라랑의 이야기를 담은 동명의 그림책을 소재로 신체놀이, 오브제 등 다양한 연극적 요소를 활용해 제작한 작품이다. '2018 ACC 참여형 어린이 공연 창작지원 사업'의 선정된 작품이기도 하다.

연휴 기간 중 한복 등 아시아 전통의상을 입고 오면 어린이체험관 입장료 50% 할인, 어린이 공연 50%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다채로운 전시 프로그램도 관객들을 만난다.

문화창조원 대나무정원에서 열리는 'FOOD TODAY 인도네시아 음식, 사회, 미디어 아트' (24일까지)전에서 소개되는 작품은 인도네시아와 수교 45주년을 맞아 비영리예술공간인 루앙루파의 'OK. VIDEO 인도네시아 미디어아르페스티

발'에서 소개했던 영상작품들과 아카이브 자료로 인도네시아의 과거와 현재를 담고 있다.

복합 5관에서 열리는 '김세종민화컬렉션-판타지아 조선(Fantasia Joseon)전' (10일까지)은 지난 20여 년간 김세종 컬렉터가 집중적으로 수집한 문자도, 책거리, 화조, 산수, 삼국지, 구운몽, 까치호랑이 등 60여 점을 전시하고 있다. 또 복합 6관에서는 지역작가전 '우제길의 빛' (10일까지) 전시가 열리고 있다. '빛'을 주제로 한 작품들로 확고한 자신의 작품 세계를 구축해온 우제길의 신작 31점을 중심으로 6m 대작도 만날 수 있다. 그밖에 라이브리리파크 기획관3에서는 '마나스: 유네스코 등재 인류 최고의 서사시' (4월30일까지)전이 열린다.

다양한 전시가 열리고 있는 광주시립미술관 나들이도 좋다.

본관에서는 고(故) 박은용 화백의 타계 10주기를 맞아 그의 작품 세계를 회고하는 '석현 박은용-검은고독, 푸른 영혼'전이 열리고 있다. 전시에서는 그의 대표작과 함께 그가 마지막까지 사용했던 먹, 지인들에게 보낸 편지와 엽서 등 아카이브 자료들도 만날 수 있다.

또 오송우 등 전남북 지역 작가들의 대표작들을 선별한 미술관 소장작품전 '남도의 빛과 바람'전, 정연두·정은화 작가 등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미디어 아티스트들의 작품이 전시된 '당신속의 낙원-Media YouTopia'전도 흥미롭다. 로비에서는 신춘릴레이 기획전으로 광주시립미술관 국제레지던시 입주작가인 양나희 작가의 '광주풍경'전이 열린다.

그밖에 하정웅미술관에서는 광주-전남 수채화협회를 초청한 '남도의 빛'전이, 사전전시관에서는 소장작품전 '빛과 그림자

의 기억'전도 열리고 있다. 4, 5일 휴관.

새해와 어울리는 전시도 눈길을 끈다. 신세계갤러리는 김제민·박구환 등 13명의 작가를 초청한 신년기획전 'Fly Piggy Fly!'를 열고 있으며 롯데갤러리는 나예심(천연염색·자수), 박현철(한복디자인·침선), 소빈(한지조형) 작가를 초청, '깊어질 수록 꽃이되는'전을 진행 중이다.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는 6일 전통놀이와 공연으로 꾸며지는 '얼씨구-돈(豚)뎛고 가세'로 설 관객을 맞이한다.

이날 오후 3시 서석당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적벽가 보유자 송순섭 명창과 제자들의 공연으로 꾸며진다. 이현정의 판소리 '흥보가' 중 '제비노정가', 이소연의 '적벽가' 중 '새터령'을 무대에 올리고 송순섭 명창은 '적벽가' 중 '적벽대전'을 부른다

이날 정오부터 팽이치기, 제기차기, 윷놀이, 널뛰기, 투호던지기 등을 즐길 수 있는 민속놀이가 진행된다. 체험마당에서는 오후 1시부터 한복 입기, 황금돼지복두머니 만들기, 솟대 소원쪽지 쓰기 등이 진행된다. 탕화장 보유자인 송광무(광주시 무형문화재 21호)씨는 직접 그린 기해년 세화를 시민들에게 선물한다.

이날 한복 체험을 포함한 전통문화관의 모든 행사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문의 062-232-1502

국립남도국악원은 5일 오후 3시 진도향토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설날특별공연 '새해 세나라'를 연다.

먼저 사물놀이 연주단이 '대동놀이'를 펼치며 역동 넘치는 공연을 선사한다. 또 '흥보가' 중 '박타는 대목'을 두명의 소리꾼의 입체장으로 무대에 올리고 화려한 부채춤이 분위기를 돋운다. 마지막 무대는 민요 '남원산성', '성주풀이', '진도아리랑'으로 마무리한다. 전석 초대. 문의 061-540-4036.

/김미은·백희준 기자 mekim@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고 있는 '우제길의 빛'전을 찾는 관람객들이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제공>

## 윷놀이·투호... 박물관 민속놀이 즐기세요

광주박물관 '우리문화 한마당' 나주박물관 오케스트라 공연 영산강문화관 윷놀이 경연대회



국립광주박물관 앞마당에서 윷놀이를 하고 있는 시민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김승희)은 2일부터 6일까지(5일 휴관) '2019년 설맞이 우리문화 한마당'을 개최한다.

이 기간 동안 대형 윷놀이, 칠교, 고누, 팽이치기 등 전통놀이를 비롯 북, 장구, 탕과리, 소고 등 사물놀이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했다. 또한 꽃대지 대박카드 만들기, 화공이 그리는 초상화, 돼지 씨름 경연대회, 전통마술공연 '얼씨구 절씨구' 등 다양한 문화행사도 펼쳐질 예정이다. 돼지 씨름 경연대회와 마술공연은 박물관 누리집(gwangju.museum.go.kr)을 통해 사전예약제로 진행된다.

또 영화 '쌍', '살투의 거미줄', '꼬마돼지 베이브의 대모험'을 상영한다. 연휴 기간에는 돼지띠 혹은 한복을 입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돼지 저금통을 선착순으로 나눠준다. 문의 062-570-7016.

국립나주박물관에서는 꽃팽이 접기, 인간 윷놀이, 망쭈기, 비사치기 등 다양한 민속놀이를 배워보고 공기놀이, 투호, 제기 및 팽이치기 놀이를 체험할 수 있다. 2일에는 '빛가람첼버오케스트라'가 영화음악 등 친숙한 음악을 플루트, 바이올린 등의 클래식 악기로 직접 연주하는 공연을 개최한다.

3일 및 6일은 강당 및 꽃팽이 접기, 인간 윷놀이, 망쭈기 등 전통놀이 체험 행사가 펼쳐지며 우수자에게는 특별선물도 지급된다. 4일에는 비둘기 매직쇼, 당근 & 토끼 퍼포먼스 등 4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패밀리 매직쇼-에픽 엔터테인먼트' 공연이 열린다. 야외마당에서는 상모 돌리기, 제기차기, 팽이치기 등 전통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다. 5일에는 휴관한다. 문의 061-330-7804.

광주시립민속박물관에서도 '2019 설맞이 민속문화 체험마당'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에는 삼재부 및 돼지문양 쪽기, 민속놀이(7종), 입춘방 나눔, 모듬북 공연, 캘리그래피로 덕담 써주기 등 다양한 체험놀이로 구성돼 있다.

야외마당에서는 굴렁쇠 굴리기,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놀이, 고리던지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4일에는 입춘방 나눔을 진행한다. 이날 박물관을 찾은 시민(선착순 200명)은 박물관 로비에서 입춘방을 배부받을 수 있다. 설날(5일)에는 박물관 야외마당에서 흥겨운 모듬북 공연이 펼쳐지고 로비에서는 캘리그

라피로 덕담 써주기와 복주머니 만들기(재료비 1000원)가 운영된다. 문의 062-613-5365.

㈜위터웨이플러스영산강문화관(관장 장희정)은 2-6일 승촌보 일대 및 영산강문화관에서 설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5일에는 창작극약그룹 '노라'가 민요, 판소리, 시조 등 다양한 창작 국악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가족 윷놀이 경연대회'가 열린다. 윷놀이 대회는 참여자(2인 8조)를 사전에 접수, 모집하며 우수한 가족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제공된다. 이밖에 '신년 메시지 카드' 체험과 '황금 福돼지 저금통' 만들기 체험이 진행된다.

연휴 5일간 문화관에서는 대형윷놀이, 투호놀이, 제기차기, 팽이치기 등 전통민속놀이와 재미로 보는 신년 윷점보기가 상설 운영된다. 문의 061-335-0866.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2~3일 열리는 문화전당 어린이 연극 '달아난 수염'.



6일 광주시 동구 윤림동 전통문화관서 공연하는 송순섭 명창.

# 덕남동 임야, 여수 땅, 투자가치 좋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지분 300평
- 대학교수, 건설회사,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장/단기 투자대비 큰수익 가능
- 매매 - 7500만원 (일시불 조정가)

- 전남 여수시 봉강동343-1번지의외 2필지, 대지 431평 (343-1-260평, 343-2-141평, 344-30평)
- 세일신경외과 바로 옆, 6차선 도로접, 전면65M
- 일반상업지역-90%, 준주거지역-10%,
- 대출-18억7500만원
- 시세/감정가-약 35억
- 호텔/주상복합상가/메디컬센터등 모든업종 개발가능
- 매매 - 30억

문의. 010-3605-5000